

# Maison

marie claire

2025 SEPTEMBER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켈리 웨어슬러가 디자인한 LA 집

JEWELRY & ART  
프레드와 파이프콤마의 만남

GARDEN  
멸종위기 식물을 품은 발 라메 식물원

ARCHITECTURE  
초현실적인 건축

BOOK IN BOOK  
인피니, 바이스프링 침대 이야기

## ART IN SEOUL

도심 속 예술 여행, 서울에서 주목해야 할 공간과 전시

정가 9,900원







'NV8944', 2018.

## <메종>×예화랑이 함께하는 삼청 나잇

청담 나잇, 한남 나잇과 달리, 삼청 나잇은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길 속에서 예술을 한모금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밤이다. 예화랑은 조선의 비밀 정원이었던 창덕궁 후원의 풍경을 품은 갤러리로, 고요한 아름다움이 깃든 공간이다. 이곳에 김우영 작가의 개인전이 더해지면, 비원의 정적과 사막의 황량함이 교차하는 말 그대로 '두 세계가 만나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9월 4일 열리는 삼청 나잇에는 <메종>과 예화랑이 아트 컬렉터를 위한 오픈 라운지와 미공개 작품 전시를 함께 진행한다. 미술평론가 안현정 큐레이터가 안내하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재즈 칼럼니스트 황덕호가 큐레이션한 최여완 보컬, 더블베이스 이원술, 기타 정수옥의 연주가 곁들여지는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프랑스 프리미엄 시럽 '모넨'과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원소주'의 전시 지원으로 하이볼도 제공되니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끽해 보시길. 박명주 메종 마리끌레르 편집장



'DVR8084', 2015.

## <Be Like Water>

파운드리 서울 8.23.~10.4.

파운드리 서울에서 미란다 포레스터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친밀함과 경계가 공존하는 '물(Bodies of Water)'을 주제로 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흑인 퀴어 여성이라는 작가의 특별한 시선은 가족과 집, 일상의 내밀한 순간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미술사에서 소외되었던 존재들을 환기시킨다.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캔버스를 통해 피부 너머를 들여다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며, 회화의 표면은 안과 밖, 물질과 신체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여성성, 젠더, 섹슈얼리티의 복잡한 내러티브를 느끼며, 섬세한 시선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전시다.



&lt;Be Like Water&gt; 전시 전경.

## <패치워크!>

더 월로 8.28.~9.28.

조각난 이미지와 단어들이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될까? 더 월로에서 열리는 전시 <패치워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무빙 이미지와 문학적 텍스트를 엮어, 파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일본의 신진 작가 사토 토모코와 아오야기 나츠미를 비롯해 박선호, 임지희 등 여성 미디어 아티스트 네 명이 참여한다. 미디어와 퍼포먼스로 구성된 신작 5점과 구작 1점이 선보이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와 언어의 파편을 꿰매어 복수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단순하고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의 시대에 <패치워크!>는 오히려 느리고 다층적인 읽기를 제안한다. 전시장을 거닐다보면, 당신만의 방식으로 전시를 '읽어내는' 경험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박선호 '조율된 입자', 2025.

